

종교교육학연구 제45권. pp.71-101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4. 7. 30.

생명윤리와 통일교의 종교교육

오 규 영*

선문대학교

〈요 약〉

통일교의 생명윤리를 살펴보기 위해서 통일교에서 말하는 생명에 대한 관점을 육신과 영인체의 생명, 생명의 탄생과 사랑, 생명과 영인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통일교 생명관의 특징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 의하여 육체와 육심으로 된 육신의 생명이 시작되고 배속에서의 태아가 태어나 숨을 쉴 때 비로소 생심과 영체로 된 영인체의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과 인간은 3단계의 생을 살기 때문에 모태 안에서의 태교가 중요하고, 육신 쓴 지상생활이 중요하다. 그러나 참사랑은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가정적 사위기대를 중시한 윤리관을 가지고 있다.

생명과학의 연구윤리는 자유의지에 의한 자유행동으로 연구하되 창조원리 내에서 진행하고, 책임을 지는 윤리, 인간과 인류를 위한실적을 얻는 윤리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적 사위기대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인공수정은 찬성, 대리모, 정자기증, 난자기증은 반대, 임신중절과 영아살해 반대, 소극적 안락사는 존엄사로 찬성, 뇌사와 장기기증은 찬성한다.

보편적인 원리로서 생명윤리는 황금율에 따른 생명존중을 제시한다. 종교교육의 방향은 생명윤리교육의 영역과 범주에 대하여 범종교적인 차원에서 생명윤리를 정할 수 있는 가칭 “범종교 생명윤리교육 연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각 종교가 보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생명윤리를 합의와 조정으로 확정하고, 생명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교인과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봉사, 교육과 설득, 저항을 같이 해야 한다.

핵심주제어: 생명, 생명과학, 생명윤리, 보편윤리, 종교교육, 범종교생명윤리교육연구위원회

* 오규영 선문대학교 교수, 목회상담학, 가족치료전공교수, 신학전문대학원장 겸 신학순결대학장
위 논문은 선문대학교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I. 서론

세월호 사건은 배가 전복되어 생명이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둔감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승객들의 생명에 대한 보살핌은 배려하지 않는 경영인, 선장과 선원은 온국민을 슬픔의 트라우마 상태에 빠지게 하고 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배가 전복될 위험이 있음에도 구조를 변경시키는 파렴치함은 생명윤리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영인이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깨닫게 하고 있다.

생명과학과 생명윤리, 종교교육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인간과 인류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인간과 인류의 생명에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과학은 과학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자신들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 생명과학과 많은 종교들은 각자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한답시고, 인간과 인류에게 미칠 공통적인 생명윤리를 정립하는 것에는 실패하고 있다.

생명과학 및 의료기술의 발전에서 시작된 생명윤리적 과제들은 생명과학의 발달과 함께 우리에게 답을 요구할 것이다. 생명윤리의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추구하는 과학과 초월적 존재가 부여한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의 대립을 낳을 수 있다. 과학은 인간을 풍요롭게 편리한 삶을 추구하게 하는 원리이다. 양자는 모두 인간을 위한 활동이고 연구이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이어야 하지 대립할 대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과 종교가 상호보완적 입장에 서기 보다는 대립적 입장에 많이 서 있었다.

문선명은 “인류가 과학에 기대한 것은 ‘인류 공동의 복리’에 있었고, 주체인 인간의 행복에 있었다. 그러나 과학은 가치관과 윤리의 문제를 등한시하다. 과학이 분파적으로 흘러 도덕, 가치, 윤리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나서 과학에 대한 인간의 주체성과 주관성이 약화 또는 상실되게 되었다.”¹⁾ “.....그러므로 과학이 우리에게 윤리적 표준을 새롭게 확립하도록 강조하고 있다.”²⁾ 고 이야기하였다.

각 종교의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은 인간과 자연을 대하는 생명윤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기에 서로 대립하거나 충돌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한국사회는 유교의 가치관이 유교윤리를 가르쳤고, 불교의 가치관이 불교윤리를 가르쳤다. 하지만 광복 이후에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기독교(가톨릭)적 가치관이 서구문화와 함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를 맞이한 현대사회는 상대가치에 의해 다양한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가치관을 수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은 쉽게 변화하지 않으므로 생명윤리와 관련해서 서로 충돌하거나 대립할 여지가 많다.

1) 참부모님말씀편찬위원회, 『평화경』, (서울: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2013, 710~711쪽.

2) 참부모님말씀편찬위원회, 위의 책, 726쪽.

그러므로 문선명은 종교를 배제한 과학의 발달은 칼날의 양면성처럼 혜택과 해악을 동시에 줄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과학자들이 절대가치를 중시하고 연구를 해야 한다³⁾고 하였다. 더 나아가 종교지도자들이 위대한 전통의 신성하고 귀중한 지혜와 노력이 합해져야 평화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내적인 유엔과 같은 세계평화종교연합, 세계평화종교의회⁴⁾를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종교교육학회에서 생명윤리에 대한 보편적 원리를 찾아보고, 범종교적인 생명윤리교육의 방향성을 찾고자 함은 미래의 있을지도 모르는 생명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생명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연구자는 통일교의 입장에서 설명이 가능한 생명과 생명윤리의 내용을 살펴보고, 각 종교가 보편윤리로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선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그 더 위에서 보편적 윤리의 종교교육의 방향성을 정리하였다.

II. 통일교의 ‘생명’에 대한 관점

1. 생명과학과 생명윤리의 선행연구고찰

생명윤리(bioethics)는 1970년대부터 생명(bio, life)의 문제와 윤리(ethics)가 합성된 용어로서 생명윤리(bioethics)는 1970년 미국의 종양학자 반 렌슬래어 포터(Van Rensselaer Potter)가 쓴 두 편의 글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말이다.⁵⁾ 포터의 정의에 따르면, 생명윤리는 ‘생물학 지식과 인간의 가치체계에 관한 지식’을 서로 결합하는 새로운 학문으로, 최적의 환경변화를 도모하여 인류 국가 문화가 생존할 길을 찾는 학문이다. 생명윤리는 생물학, 의학, 유전학, 유전공학, 생의학 등의 여러 생명과학과 인간학, 윤리학 등의 종합적 산물이다. 생명윤리학은 윤리학에서 이미 정립된 여러 가지 원칙들에 비추어 생명의학, 생명과학의 윤리문제를 연구하고, 여러 학문분야들이 함께 하나의 문제를 연구해야만 하는 방법론을 가진다.

생명윤리는 과학의 발달과 문화의 변화가 인류와 생태계를 훼손하여 그 존재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생명윤리는 크게 ‘생명존중윤리’, ‘생명의료윤리’, ‘생명공학윤리’의 3개 영역⁶⁾으로 구분된다. 생명윤리와 관련한 주제 학교폭력, 성폭력, 가

3) 참부모님말씀편찬위원회, 위의 책, 722~736쪽.

4)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편집, 『참가정과 세계평화』, (서울:성화출판사), 2000, 452~456쪽.

5) V.R. Potter, *Bioethics: the science of survival*, ‘Perspectives in Biology and Medicine’, 1970, 14, pp.127-153; Id., *Bioethics: bridge to the future*,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J), 1971. Maria Luisa Di Pietro, *Bioetica, Educazione e Famiglia*, 정재우 옮김, 『생명윤리 교육 그리고 가정』,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0), p.23.에서 재인용.

6) 이필연, 『도덕교과서에 나타난 생명윤리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생활과 윤리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폭력, 자살, 동물복지, 임신중절(abortion), 시험관아기, 맞춤형아기의 탄생, 생명복제, 안락사(euthanasia), 뇌사(brain death), 의사조력자살(physician assisted suicide), 장기이식(organ transplant), 줄기세포연구, 휴먼게놈프로젝트, 유전자변형 등은 생명과학의 발달과 함께 매일 우리에게 이슈가 되고 있다.

생명윤리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통일교는 문선명의 말씀, 원리강론, 통일사상요강 등에서 논하고 있지만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으로 직접적인 답을 많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중고교 종교교육교사, 교수, 목회자 등 30여명에게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 분야를 연구한 교수들의 논문을 참고하여 통일교의 특색을 나타내는 일부 분야를 중심으로 생명윤리의 일부분을 논하고자 한다.

1) 종교와 과학

통일교의 교리서인 원리강론에서 종교와 과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은 유사 이래 무지(無知)에서 지(知)으로 극복하기 위해 진리를 찾아 나왔다. 내적인 무지에서 지으로 극복해 나온 것이 종교이고, 외적인 무지에서 외적인 지으로 극복해 나온 것이 과학이다. 종교와 과학은 인생의 양면의 무지에서 양면의 지으로 찾아 나온 방편이다. 인간이 이 무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본심의 욕망이 지향하는 선한 방향으로만 나아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종교와 과학이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해결되어 내외 양면의 진리가 상통되게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⁷⁾

과학은 외적인 결과의 세계, 현상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 무지를 깨쳐왔고, 종교는 내적인 원인의 세계, 본질의 세계를 알기 위해 무지를 깨쳐왔다고 하였다. 종교와 과학은 본질세계와 현상세계의 관계이고, 이 둘은 마음과 몸과의 관계 같아서 두 세계가 합치되어야 이상세계를 이룰 수 있다. 과학과 종교는 서로 상충하는 것 같지만, 양면의 무지를 완전히 극복하여 본심이 요구하는 선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다. 과학을 찾아 나온 종교와 종교를 찾아 나온 과학을 하나의 통일된 과제로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⁸⁾고 하였다. 그러므로 종교의 입장에서 생명과학의 발전을 바라보고, 생명윤리를 정립하여 연구하도록 하는 것은 종교적 가치관, 윤리관이 과학적 발전과 서로 협력해서 가야할 지향점이다.

석사학위논문, 2013), 20~25쪽.

7)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1995, 3~6쪽.

8)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위의 책』, 3~18쪽.

2) 통일교 생명윤리연구

통일교의 생명윤리는 신학적인 작업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 단지 통일사상연구원에서 생명윤리정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일사상으로 본 생명과학과 생명윤리”를 『통일사상연구논총』, 9집, (2001)에서 다루었다. 조태진⁹⁾은 노자의 생명사상과 통일사상의 생명사상은 둘 다 자연의 질서를 최대한 따른다는 공통적 특징이 있지만 전쟁에 대해서는 노자는 소극적 대처를 했다면 통일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김항제¹⁰⁾는 하나님을 생명을 창조하신 분으로 보고, 생명이 중요하며, 생명은 신의 뜻에 맞게 다루어야 하며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못 생명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대하는 윤리적 지표, 못 생명의 고통에 연대하고 해방하는 윤리적 지표, 못 생명을 창조목적으로 대하는 윤리적 지표, 못 생명의 보전에 책임을 다하는 윤리적 지표, 온 생명권에 평화가 넘치게 하는 윤리적 지표로 구분하여 논하여 생명윤리의 기준 내지 내용으로서 우리가 생명을 대할 때 지켜야 할 것들을 제시하였다. 최병환¹¹⁾은 윤리는 하나의 실천의학이요 과학과 윤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한다고 보고 통일사상의 존재론은 과학과 윤리의 합의의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생명윤리와 연관된 연구로는 선문대학교 순결학과 교수인 김계정이 「한국종교와 통일교의 생사관 및 사후세계관 연구」¹²⁾에서 생사관과 사후세계관에서 통일교의 생사관은 기독교와 유사하지 않은 면이 많다고 했고, 「자살에 대한 이해와 대책」¹³⁾에서는 통일교의 생명관과 연결시켜 자살을 논했다. 「존엄사에 관한 통일사상적 견해 도출」¹⁴⁾에서는 존엄사, 안락사와 관련하여 ‘소극적 안락사는 허락 된다.’고 하였다. 「통일사상 윤리론으로 본 생명윤리」¹⁵⁾에서는 생명복제, 존엄사, 동성애, 성전환, 자살의 문제를 다루었다. 「생명복제와 생명윤리에 관한 고찰」¹⁶⁾에서는 인간은 신과 더불어 창조의 동업자(co-creator)라면

9) 조태진, 「노자 도덕경과 통일사상요강의 생명윤리」, 『통일사상연구논총』, 제9집, (천안: 선문대학교 통일사상연구원), 2001, 91-114쪽.

10) 김항제, 「통일사상의 생명윤리 지표에 관한 연구」, 『통일사상연구논총』, 제9집, (천안: 선문대학교 통일사상연구원), 2001, 145-163쪽.

11) 최병환, 「통일사상의 존재론을 통한 생명과학과 생명윤리의 합의」, 『통일사상연구논총』, 제9집, (천안: 선문대학교 통일사상연구원), 2001, 165-192쪽.

12) 김계정, 「한국종교와 통일교의 생사관 및 사후세계관 연구」, 한국영성학회, 『영성연구』, (아산: 선문대학교, 2011), 121-150쪽.

13) _____, 자살에 대한 이해와 대책, 선문대학교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제12집(아산:선문대학교, 2008), 51~75쪽.

14) _____, 「존엄사에 관한 통일사상적 견해 도출」, 선문대학교 통일신학연구원, 『통일신학연구』, 제6집, (아산: 선문대학교 통일사상연구원, 2009), 31-68쪽.

15) _____, 「통일사상 윤리론으로 본 생명윤리」, 통일사상학회, 『통일사상연구』, 제9집, (아산: 선문대학교 통일사상연구원, 2013), 45-67쪽.

16) _____, 「생명복제와 생명윤리에 관한 고찰」, 선문대학교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연구논총』, 제9집, (천안: 선문대학교 통일사상연구원, 2001), 115-143쪽.

서 생명공학적 도움없이 인간은 생존이 불가능하지만, 생명공학이 인간에게 백퍼센트 안전하다고 볼 수 없기에 칼의 양면성처럼 생명과학 발달로 인한 혜택과 해악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인간이 현명하게 대처해야한다고 책임을 강조하였다.

이상 연구에서는 생명의 중요성 등 통일윤리 정립을 위한 대 전제를 제시하거나 윤리에 대한 지표 등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급속도로 발전해오는 생명과학시대에 당면하는 생명윤리의 각론에 대한 연구에는 부족함이 있었으나 생명, 자살 등과 관련해서는 일치점을 보고 있었다. 필자는 위의 연구를 참고하여 통일교의 생명에 대한 관점을 찾아서 그것과 연결된 몇 가지 각론을 다루고, 보편적 생명윤리와 생명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하고자 한다.

2. 인간 육신의 생명과 영인체의 생명

원리강론의 창조원리에서 인간과 세계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6 단계의 창조과정을 거쳐 유형실체세계와 무형실체세계의 이중적인 구조로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였다. 인간은 마음과 몸 즉 영인체와 육신으로 되어 있으면서 유형실체세계와 무형실체세계(무형세계란 인간이 사후에 가서 사는 영계로서 무형으로 되어있으나 실재 존재하는 실체의 세계이다. 줄여서 무형세계라고 함. 저세상, 저승과 유사한 개념)를 총합한 실체이고, 소우주로서 유형과 무형의 실체세계를 연결하고 화동시키는 중심이다. 육신(肉身)은 다시 내적인 육심(肉心)과 외적인 육체(肉體), 영인체(靈人體)는 내적인 생심(生心)과 외적인 영체(靈體)로 구성되어 있다. 영인체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소(生素)와 육체에서 오는 생력요소(生力要素)로 살고, 육체는 영인체가 주는 생령요소(生靈要素)와 음식, 햇빛, 공기 등으로 살아간다. 육신은 인간으로서 100년 내외의 삶을 살면서 영인체를 성장시키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영인체는 육신을 터로 하여 완성하고 영계에서 영생하는데 무형세계의 모든 사실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된다. 육체는 죽음이 있는 유한한 것이고, 영인체는 죽은 후에도 영원히 살게 되는데 지상의 육신생활에서만 완성된다.¹⁷⁾ 결국 통일교의 육신의 생명은 정자와 난자의 만남부터 육체적 죽음까지 이지만 영인체의 생명은 육체적 탄생부터 죽은 후 무형실체세계(영계)에서 영원한 것이다.

1) 생명의 탄생과 사랑

양성과 음성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으로 되었는데 생명의 탄생은 이성성상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특히 인간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생명이 탄생한다. 생명

17)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65-68쪽.

은 모든 것의 근원이므로 강한 사랑의 힘으로 탄생한다. 정자와 난자의 결합은 어떤 형태로든 서로 강하게 끌어당기고 달려가는 자율성과 주관성을 가지고 있기에 생명으로 결합한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생명을 주셨기에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번식된다. 통일교의 창립초기를 대표하는 원리원본에서 문선명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나 動物이나 全部가 繁殖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부터 始作된다. 男性은 愛 女性은 美로서 사랑할 수 있는 存在로되는 美의 存在가 要求된다. 그 存在를 所有하여 사랑하는 性交은 卽 創造的 本性愛인 한 瞬間이라도 共同하게 切感하여 사랑을 주고받는 곳에서는 生에 對한 基本土臺를 作成하나니라. 그 時에 男性이나 女性이나 다 사랑에 對한 醉感이 있어서만의 또한 條件은 男性에 動脈的 動과 女性의 動脈의 動이 共一 함께 授受하게 되어야만 生의 出發의 始作된다. 動脈鼓動의 움직임은 第二 生에 存在의 生의 起動力이 되어 圓滿하게 授受滿足으로부터가 第二 生의 始作은 創造原理로 보아 알려져 한다.”¹⁸⁾

사랑으로부터 번식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이 사랑에 취하여 수수작용이 되어야 제 2의 생명의 움직임이 시작되어 생명의 출발이 된다. 즉 사랑의 행위를 통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을 잉태하는 성교는 생명에 대한 기본 토대를 작성하는 것이다. 정자와 난자의 수정은 육신과 육신 안에 있는 영체를 형성한다. 결국 통일교는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 엄마의 배속이든 아니든 육신적 생명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된 것은 인간의 육신적 생명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모태에서 탄생하여 울음을 울고 숨을 쉬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지 않은 것도 생명으로 보는 입장은 아니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결합해야 생명이란 입장이다. 결합된 정자와 난자 자체에게는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지만 인격성을 부여하는 입장은 아니다.

2) 생명과 영인체

태아에게는 생심이 주입돼야 온전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다. 원리원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靈人의 存在하여 生할려고 할 때에 우리 肉身은 우리 肉體에 胃에 作用과 같은 血를 돕는 것과 같이 靈人의 生長할 수 있는 營養要素를 授給하여야한다. 그러면은 이 영양요소은 肉身生活 圓滿으로부터 始作됨이다. 卽 生心要求 대로 사는 것이다 그리하여 生心은 한 心臟과 같은 作用으로 無形空中世界로부터 無形生心要素인 呼吸를 始作하여 靈人體를 具成코저함이다. 이것의 具成되매 靈人體의 感覺性 本体인 하나님의 實體와 連關을 일우어 靈人 神經線과 같은 無限生의 動力를 感覺하여 그의 完全 存在인 한 分體로써 長成코저함의 重大要求다.¹⁹⁾

18) 문선명, 『원리원본』, 30-31쪽.

하나님은 인간을 육신으로 창조하실 때, 육체와 같은 모양으로 영체도 창조하셨다. 육신은 영체의 터(기대)로서 지으셨다. 그래서 복중에서 육체가 자랄 때에 영체도 같이 자란다. 영체에 생심이 들어오면 영인체가 된다. 하나님은 인간이 태어나서 첫 호흡할 때, 생심을 넣어주어 영인체가 형성하도록 하신다. 영인체는 육신을 터로 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소, 성서에서 말하는 ‘생명’과 같은 것을 받아 성장하는 것이다. 만일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났어도 탄생하여 호흡을 하였다는 입장이면 영인체를 가진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아살해는 살인에 해당된다.

3) 3 단계의 생명

통일교의 원리강론의 창조원리에 따르면 인간은 3생을 산다. 엄마의 뱃속 물속에서 첫 번째의 생, 지상에서 육지의 공기 중에서 두 번째 생, 죽은 후에 영계에서의 세 번째 생의 3단계 과정을 통하여 인간은 살게 된다고 하면서 아기로서 숨을 쉬는 것이 첫 번째 생의 마지막이자 두 번째 생의 시작이고, 죽음으로 호흡이 멈출 때가 두 번째 생의 마지막이자 세 번째 생의 시작이라고 한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으로 인간으로서의 생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상에 태어나지 않았기에 영인체는 없는 첫 번째 단계의 생명이다. 하지만 첫 번째 단계에서의 생활이 두 번째 단계인 지상생활을 할 수 있는 성품을 결정하기 때문에 태교가 중요하다면서 문선명 선생은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두 번째 단계인 지상생활을 잘 하여야 세 번째 단계인 영계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입장에서 소생, 장성, 완성의 3 단계과정으로 정하였다. 통일교의 3 생이란 개념은 불교의 성불 때까지의 무한 윤회환생과는 다르고, 생은 한번 뿐이라는 무신론과는 다르다. 또한 육신의 부활과 영생을 꿈꾸는 교단과도 다르다.

4) 생명과 태교

인간의 탄생이 호흡을 시작하면서 영인체가 될 때이지만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생명의 토대가 형성된 것이다. 그 토대를 부모의 사랑과 헌신으로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교가 태어난 이후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복중에서 잘 주고 잘 받아야 돼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피살을 중심삼고 그것을 완전히 받아야만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 그렇기 때문에 태교(胎敎)라는 것이 중요해요. 정자를 받아서 언제나 수직과 수평을 중심삼고 상하관계·좌우관계·전후관계의 역사적 전통을 지켜야 돼요. 아들딸을 어머

19) 문선명, 『위의 책』, 28쪽.

니가 키워 가지고 낳는 거라구요. 조상의 핏줄을, 조상의 혈족을 낳아서 기르는 것이 어머니예요.²⁰⁾

어머니는 태교를 위해서도 조상들과 연결되어 아이를 기르는 생활이 중요하다면서 정성을 강조하신다.

복중의 아기에게 어머니가 잘 크라고, 뭐인가? 교육하는 게 뭐라고? 「태교입니다.」태교! 태교 해 가지고 몸도 바로 하고, 전체 먹고 마시는 것도 아기를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과정을 거쳐 나가 가지고 정성 정성을 했기 때문에 정성보다도 더 큰 열매가 나왔으니 그거 붙들고 ‘나는 없어져도 된다.’ 이거예요. 열매가 나왔으면 그 열매 가운데는 하나님과 같은 열매의 씨가 많이 박히는 거예요.²¹⁾

어머니는 태교를 통해 부모의 정자를 받고, 상하관계, 좌우관계, 전후관계의 역사적 전통을 받은 혈족이 되게 해야 한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동안 엄마는 아기를 위하여 온갖 정성을 드리고 ‘자신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희생과 정성이 있어야 하나님과 같은 열매의 씨가 박힌다고 하였다. 인간이 온전한 육신과 영인체를 갖기 위해서는 부모의 태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이는 호흡과 함께 영인체가 생겨야 온전한 인간이라는 입장과 상치된다.

결국 통일교는 생명의 시작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보았고, 영인체를 가진 인간의 탄생은 호흡과 함께로 보았다. 하지만 엄마 뱃속에서의 태교도 강조하는 것은 아이의 성격이나 감정의 형성은 임신 중에도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출생전의 생명도 귀하게 여긴다.

5) 생명과 자살, 순교

통일교에서 자살은 엄격히 금지되는 가르침이다. 생명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자기마음대로 할 수 없다. 자살은 영인체가 완성할 토대를 없애는 것이므로 가장 나쁜 것이고, 지옥 밑창으로 가게 되는 행위이다.

그게 자기 목숨인가? 그 생명이 자기 것이야? 어머니 아버지 것이지. 대한민국 것이지 자기 것이야? 어머니 아버지 몸을 치고 나라를 치는 거예요. 이걸 치고 자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존재 기반을 없애는 것입니다.²²⁾

자살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밑창으로 떨어진다는 거야.²³⁾

20)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서울:성화출판사), 2000, 407권128쪽이하는 말씀선집이라고 함.

21) 『말씀선집』, 469권 34쪽.

22) 『말씀선집』, 187권 238쪽.

생명은 자기 것이 아니고 부모와 나라, 하나님의 것인데 함부로 버리는 것은 자기의 존제기반을 없애는 것이다. 자살은 지옥밑창에 떨어지는 가장 안 좋은 행위이므로 절대 금지이다. 통일교에서도 순교적 삶은 존중된다. 왜냐하면 사랑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을 실천하는 결과로 자기 육체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은 허용된다. 예를 들어 삼손의 죽음과 같이 섭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입장에서 하늘편의 승리를 위한 자기희생적 죽음이 있고, 베드로와 같은 순교로서의 죽음, 정조를 지키기 위한 자해, 타인을 구하기 위한 사랑의 실천으로써의 자기희생적 죽음 등은 허용된다고 하였다.²⁴⁾

통일교의 특이한 점은 순결과 정조를 강조하기 때문에 정조를 지키기 위한 자해는 순교자와 같은 입장에서 허용된다는 것이다. 어쨌든 노인 자살율이 가장 높은 한국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종교계에서 자살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

3. 통일교의 생명과학과 생명윤리 이해

통일교는 과학이 인간의 양면의 무지 중에 외적인 무지(無知)를 지(知)의 세계로 일깨워 온 과학의 발달을 중요시 여겼다. 과학은 인간의 내적인 무지를 깨우쳐온 종교를 주체로 여기고, 대상이 되어 종교와 수수작용하면서 발전해야한다고 하였다. 종교가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한다고 할 때 생명윤리와 생명과학은 서로 잘 주고 잘 받으면서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생명과학의 발전

문선명 선생은 생명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 신의 영역을 인정하게 된다는 신앙적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생명윤리, 생명윤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구구한 학설이 많았어요. 현대에 와 가지고는 신생 이론을 중심삼아 가지고 ‘생명은 인간의 힘으로 터치할 수 없다’ 하는 이론과 ‘이것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생명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터치할 수 있다’ 이런 이론으로 갑론을박을 해 나오다가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새로운 이론이 나와 가지고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터치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경지에 있는 것이다. 신비경이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기원에 대한 것은 막연하지만, 그 기원을 알 수가 없지만 실제의 그 근원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어요.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이제 이것을 과학적으로 인정할 단계에 들어가요.²⁵⁾

23) 『말씀선집』, 372권 209쪽.

24) 마스다 요시히코, 주재완, 니시오카 마사유키 옮김 『축복가정을 위한 천일국 생활윤리』, (천안: 선문대학교출판부), 2003. 174~176쪽.

이상과 같이 생명과학의 연구는 한계를 드러내고, 신을 인정하는 입장이 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겼다. 신의 영역,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생명과학의 발달은 긍정적으로 여겼다.

문선명 선생은 생명과학이 발전하여 DNA를 합성할 수 있고, 생명복제를 할 수 있도록 발전한 것은 인정하였다. 하지만 과학자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생명 자체를 만들 수는 없고, 생명을 유숙(留宿)시키는 장치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과학자가 DNA를 합성하거나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생명 그 자체는 조물주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이다.²⁶⁾ 왜냐하면 모든 존재물은 각자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개성진리체’²⁷⁾ 이고 각 개체는 보편상(성상·형상, 양성·음성)외에 그 자체가 개별화된 개별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줄기세포, 그게 제일 어려운 게 개예요. 개 세포를 해서 같은 개를 만드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개라는 거예요. 왜 그게 어려우냐 이거예요. 그 개 세포가 제일 어려운 세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 다음에, 그렇다고 개 세포를 전부 다 살려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절대적이에요.”²⁸⁾

원리강론에 의하면 생명의 번식은 수수작용에 의한 정분합작용으로 이루어지는데 무형의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이 그 창조목적에 중심하고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그것이 실체적으로 전개되어 번식한 것이고, 일체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은 편재(偏在)하신다.²⁹⁾ 통일교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에 따른 인간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시려는 한에서 과학의 발전을 받아들인다. 위의 말씀에 따르면 생명과학에서 말하는 생명복제는 어디까지나 존재물의 형상적 외형적인 것을 조합, 합성, 복제, 변이하여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생명과학이 발달하여 생명체를 복제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종을 만들 수는 없다. 각 존재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 개성진리체로서 인정되려면 탄생의 과정을 거쳐서 보편상과 개별상을 지닌 존재가 되어야 한다. 복제를 통해서만 다른 종의 보편상은 가질 수 있고, 개별상을 가질 수 없으므로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동물의 합성과 조합, 복제, 변이를 통해 새로운 종의 동물을 만들거나 새로운 종의 인간을 만드는 것은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고, 생명과학연구의 자유의 세 가지 원리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된다.

25) 『말씀선집』, 159권 267쪽.

26)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서울: 성화출판사), 1993, 174-175쪽.

27)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1994, 38-39쪽.

28) 『말씀선집』, 504권 265쪽.

29)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40~42쪽.

2) 생명과학의 연구윤리와 자유

하나님은 창조적 진화의 과정을 거쳐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였다. 6단계의 창조과정을 거치면서 광물의 이성성상에 식물적인 내용이 첨가되어 식물이 되고, 식물의 이성성상에 동물적인 이성성상이 첨가되어 동물이 되고, 인간의 이성성상이 첨가되어 인간이 되는 창조과정을 거쳐 6단계로 진화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은 우주를 축소한 ‘소우주’이다. 인간과 동물은 서로 동질, 동요소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적용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영인체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동물과는 구별되고, 인격성은 복제될 수 없다. 하지만 가장 어렵다고 하는 동물의 복제에 성공한 생명과학은 인간의 복제도 가능할 정도로 발전해가고 있어서 인간의 인격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생명과학의 연구 윤리를 ‘자유의 원리적 의의’³⁰⁾ 입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자유의지에 따른 자유행동, 자유행동은 자유의지로 나타나는데 이를 일괄하여 자유라고 한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말씀 원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생명과학의 연구는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창조의 질서를 깨지 않는 선에서 연구하는 것은 용납이 된다. 그 질서를 유지하는지 깨뜨리는지를 분별하는 생명윤리이다. 원리 안에서 생명과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종과 종을 결합하거나 변화시켜 새로운 종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은 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생명은 타율에 의해 억지로 파괴나 소멸을 결정할 수 없다. 적극적 안락사는 안된다. 자율성과 성장발전하면서 주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성을 가지므로 유기체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한 부족으로 보는 장기생산이나 장기기증은 전인적인 관점을 가진 생명과학연구 윤리를 가져야 한다.

둘째, 자유는 책임을 수반한다. 자신의 자유의지로서 자신의 책임분담을 완수해 나가도록 자유가 주어진 것이다. 생명과학의 연구는 과학자가 자신의 자유의지로서 하되 자신이 인류에게 미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여 연구해야한다. 연구윤리는 연구가 미칠 결과나 파장이 하나님의 창조목적의 세계를 이루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지 인류에게 해가 될 것인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생명과학연구윤리는 그 연구의 결과로 얻어질 것이나 미칠 파장을 고려하는 생명윤리이다. 예를 들면, 생명체는 생명이 담하(擔荷)된 생명의 형상이므로 내 소유가 아닌 존재 자체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생명을 보호하고 보살필 책임이 있다³¹⁾ 그러므로 생명윤리는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이 생명답게 하느냐 여부에 있다.

종과 종을 결합하여 새로운 종을 만들려는 시도들은 잘못된 결과를 만들 수 있으므로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가 된다.

30)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같은 책』, 101~102쪽.

31)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같은 책』, 59-61쪽.

셋째, 실적 없는 자유는 없다. 인간이 자유의지로서 책임분담을 완수하려는 목적은 창조목적의 완성이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실적을 세우려는데 있다. 그러므로 생명과학의 연구는 자유의지로서 자유행동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인간과 만물세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창조목적의 세계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실적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결과가 하나님을 기쁘고 자연만물과 인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생명윤리를 결정해야한다. 예를 들어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이므로 못 생명을 사랑으로 대하고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공생하는 인간임을 인정한다. 생명간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개체 생명의 존엄성도 존중하는 생명윤리이다. 하나님이 창조의 기쁨, 타락의 슬픔, 재창조의 기쁨을 얻기 위한 고통³²⁾을 가지고 생명윤리는 얼마만큼 생명을 사랑하는냐에 그 윤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 이상의 세 가지 자유의 틀 안에서 생명과학의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종교계는 생명윤리의 기준을 세워주어야 한다.

3) 통일윤리론과 생명윤리

통일교의 윤리의 성립 근거는 첫째, 하나님의 참사랑, 둘째, 가정적 사위기대 이론, 셋째, 3대상 목적의 개념이라고 하면서 통일윤리론의 목적은 가정적 사위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랑의 덕목을 다루는 것³³⁾이라고 한다. 생심과 육심의 수수작용에 의해서 내적사위기대가 형성될 때, 생심은 주체, 육심은 대상이 된다. 타락이후 육심이 주체가 되어 육심의 목표인 의·식·주·성생활이 선차적이 되었고, 생심에 의한 가치의 생활은 2 차적이 되었다. 그러므로 수도생활, 인격생활을 통해 개인완성과 가정적사위기대의 완성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윤리는 가정에서 가정의 구성원이 지켜야할 규범이고, 가정을 기반으로 한 인간행위의 규범이다. 또한 연체로서의 규범이면서 가정완성을 위한 규범이다. 윤리는 사랑의 위치와 질서위에서 성립한다. 사랑의 질서는 성적 결합의 질서, 남녀쌍의 질서이다. 부모와 자녀의 질서, 부부의 질서, 형제자매의 질서는 사회윤리에도 가족관계가 확대 적용된다. 가정윤리는 사회윤리, 국가윤리로 확대하는 것이다.³⁴⁾

통일교의 윤리는 하나님의 참사랑, 가정적 사위기대, 3대상목적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생명과학의 윤리는 가정의 질서와 참사랑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정해져야 한다. 참사랑이 아니라거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라거나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형제자매의 관계 등의 사랑으로 묶여진 유기체 관계를 더 형성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생명윤리가 될 수 없다. 이상의 생명윤리의 기준에 따라서 대리모, 인공수

32) 『말씀선집』, 354-357쪽.

33) 선문대학교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천안: 선문대학교출판부), 2007. 393~394쪽.

34) 선문대학교 통일사상연구원, 『위의 책』, 394~350쪽.

정, 임신중절, 영아살해, 낙사, 안락사, 장기이식 등을 살펴보겠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 폭력 등의 문제 등은 명백한 것이므로 합의된 것으로 생각하여 논외로 하겠다.

4) 생명과 산아제한, 대리모, 인공수정

통일윤리에 따르면 참사랑에 의한 가정적 사위기대를 지켜야 바람직한 생명윤리이다. 산아제한, 대리모, 정자제공, 난자제공은 생명윤리에 어긋난다.

하나님의 창조이상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가 필수이므로 축복가정들은 피임과 산아제한³⁵⁾을 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자녀의 탄생은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 줄 가장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면서 자녀를 많이 낳은 것을 장려하였다.(7자녀 이상인 사람들에게 시상). 하지만 피임과 산아제한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특수한 상황이나 다출산 기피의 상황에서 허용된다. 왜냐하면 피임과 산아제한은 강력한 교리적 배경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공수정은 허용된다. 임신할 수 없는 부부가 있다면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가지고 인공 수정하여 임신하는 것은 용인된다. 즉 엄마의 모태를 기반으로 엄마가 태교하면서 양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중요시 여겼기에 정자와 난자가 모두 엄마와 아빠의 것이면 ‘인공수정’은 권장될 수도 있다. 발전된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된다. 영인체의 번식은 육신을 쓰고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고, 창조목적인 가정적 사위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출산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리모나 정자제공, 난자제공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 정자와 난자는 생명의 탄생을 위한 질서 속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1부 1처로서 축복받은 가정은 지상만이 아니라 영계까지도 영원히 가야하기에 부부에 의한 자녀여야 한다. 창조원리에 따라 1남 1녀가 맺어지게 된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대리모’, ‘정자의 제공’, ‘난자의 제공’은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생명윤리에 어긋나므로 용납이 되지 않는다. 대리모, 정자제공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빌려서 아이를 낳는 것보다는 이미 출산된 다른 집 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좋다. 입양한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것이 생명윤리에 합당하다.

5) 임신중절과 영아살해

하나님께서서는 이 새로운 생명의 창조에 직접 임재하신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는 우주법칙의 일부분이다. 모태 내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는 영체가 있지만 영인체 자

35)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천성경』, 587-598쪽.

체는 없다. 모태는 영혼이 머무르는 기반인데 임신중절 수술로 낙태를 한다는 것은 영혼의 기반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유산은 모태속의 아이를 하나님 및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과 접하고 있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행위³⁶⁾ 이므로 해서는 안된다. 경제적 사정이나 부부간의 불화 때문에 유산하는 것도 불가하다.

인공유산이나 자연유산 된 아이는 생심(생명, 본심)은 없다. 영체는 없지만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임신중절로 낙태를 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아기를 유산하는 것은 생심을 받을 집(담하체)을 파괴하는 것이고, 인간자체는 아니지만 인간이 될 수 있는 원천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다. 부부가 영계에 갈 때 혼적으로 남아있게 된다.

하지만 인위적인 임신중절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허용된다. 임신이 산모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경우 산모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 반면, 태아는 영혼의 기반 만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산모의 생명이 태아의 생명보다 더 값진 것이기 때문이다.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되 산모를 우선적으로 구해야한다. 둘째, 태아가 검사(양수검사, 난막검사 등) 결과 ‘다운증후군(선천성정신박약의 일종)’이나 척추과열(척추결핵으로 등뼈가 파괴되거나 변형)일 때 등 불치의 선천성 결함이나 생명의 위험이 있을 때는 유산시킬 수 있다. 부부가 임신중절을 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의사와 상의하되 부모가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³⁷⁾ 이는 생명윤리의 엄격한 적용을 하는 내용과는 배치되기 때문에 통일교의 임신중절과 관련한 생명윤리는 보다 엄격한 정리가 필요하다.

장애인으로 태어난 영아의 살해는 생명윤리에 어긋나므로 절대 안 된다. 기본적으로는 태어나는 순간 아이가 장애인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주신 생소를 받아 2단계인 인간으로서의 영인체가 형성되었기에 영아살해는 생명윤리에 어긋나므로 절대 안 된다. 국법에서도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이가 출산하여 호흡을 하였으면 영인체를 가진 인간이므로 영아살해는 절대 안된다. 일단 생명을 지니고 태어났으면 잘 키우기 위하여 자신의 죄나 조상의 죄에 대한 탕감으로 여기고 잘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 하여야한다. 영아의 문제를 개인과 가정에만 책임을 맡기기에는 너무나 큰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가 책임을 나누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6) 생명과학과 안락사

안락사(Euthanasia)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나눌 수 있고, 세분화하면 그 내용이 자발적, 비자발적, 반자발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³⁸⁾ 적극적 안락사는 의사가 적

36) 역사편찬위원회, 『전통』, (서울: 성화출판사), 1997, 116~117쪽.

37) 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17-118쪽.

38) 임종식, 『생명의 시작과 끝』 (도서출판 로템나무, 1999). p.306 참조

(R. Chadwick, ed.,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Academic Press, 1998), pp. 175-187.

극적으로 개입하여 죽음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고,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 등을 명분으로 시행되는 치료중단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통일교의 생명윤리는 첫째 적극적 안락사는 용납이 안된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생명의 중요한 근원이므로 적극적인 의미에서 안락사는 자의적, 비자의적, 반자의적이든 안된다. 인간의 영인체가 완성급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으며, 우리는 다만 관리할 뿐이다.³⁹⁾ 하나님은 우리가 완성에 도달한 이후 그의 사랑과 창조성, 참된 생명을 부여하고자 하신다. 인간의 영인체는 육신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성장한다. 육신이 없으면 영인체가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 적극적 안락사는 육과 영의 관계를 임의대로 파괴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원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윤리에 어긋난다. 독약이나 독가스를 마시거나 주사하거나 호흡을 위한 공기를 차단하여 죽게 하는 것은 안된다. 비록 죽음을 자발적으로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

둘째, 소극적 안락사는 존엄사의 입장에서 허락한다. 소극적 안락사는 자발적일 때 가능하고, 가족의 동의가 있거나 추정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 문선명 선생은 자신의 둘째 아들이 사고로 뇌사의 상태일 때 생명연장 장치를 떼도록 한 사실이 있다. 담당의사의 판단에서도 이미 뇌사상태이고 절대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생명유지 시스템을 떼도록 지시하였고,⁴⁰⁾ 생명연장 장치를 떼었는데도 불구하고 3일을 더 살다가 사망했으니 자연사이다. 이는 뇌사의 상태이면서 회복불가능일 때는 생명연장 장치에 의한 생명유지 보다는 자연사를 더 중요시 여긴 것이다. 김계정은⁴¹⁾ 극히 제한된 의미의 존엄사만을 허용한 다는 것인데 첫째, 건딜 수 없는 신체적 고통이 있고, 둘째,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임박한 상태이고 셋째, 신체적 고통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이미 다 시도해서 그 이외의 대체수단이 없으며 넷째, 자신의 생명단축을 승낙하는 환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 가족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본인이 혼수상태이고 심한 고통이 없다 해도 인공 연명장치에 의존하여 오랜 생명을 유지하기를 원치 않을 때 가족과 의사의 동의하에 소극적 안락사로서의 존엄사를 택할 수 있다.⁴²⁾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 지극히 보수적인 가톨릭 등 국내 주요 종교계에서 허용하는 정도의 존엄사는 통일교도 수용하고 있는 생명윤리이다.

39) 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15~127쪽.

40) 傳統偏執委員會, 『傳統』, (東京: 光言社, 1987), pp.237-238, 마스다 요시히코 지음, 주재완·니시오 카 마사유키 옮김, 『축복가정을 위한 천일국 생활윤리』, (천안: 선문대학교 출판부), 2004, pp.177-180, 재인용.

41) 김계정, 『존엄사에 관한 통일사상적 견해 도출』, 『통일신학연구』, 제16집, (아산: 선문대학교출판부) 2009년 겨울호, pp.31-68.

42) 마스다 요시히코, 『축복가정을 위한 천일국 생활윤리』, 176~180쪽.

7) 뇌사와 장기기증

뇌사는 인정된다. 뇌사와 심장사로 구분할 때 통일교에서는 영인체가 언제 육신에서 떠나느냐는 논쟁과 관련이 있다. 뇌의 활동이 멎은 사람과 심장까지 멎은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죽음을 어느 순간으로 정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통일교 과거의 교육에서는 머리 정수리에 영인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입장에서 보면 뇌사는 사망이다. 하지만 뇌사의 상태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기적을 믿는 신도의 입장에서는 기도하고 정성 드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여기고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장기기증의 입장은 뇌사임이 확실하다면 가능하다. 통일교에서는 영인체가 육신으로부터 언제 떠나느냐는 명확하지는 않다. 의사들이 포함된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쳐 뇌사가 확실하다고 판정하고,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에 서약했거나 가족이 장기기증에 동의하고 추정동의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생명윤리는 내 생명을 희생시켜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다면 생명을 사랑한 행위이기 때문에 권해야 할 것이다. 생명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근본적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사랑과 생명 중에서 더 근원적이고 중심이며 귀한 것은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생명을 위해서 사랑을 희생한다.’는 사람과 ‘사랑을 위해서 생명을 희생한다.’는 사람 중 어느 쪽이 중심입니까? 어느 쪽이 더 참에 가깝습니까? 사랑을 구해서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 보다 중심이고 더 참에 가까운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사랑을 희생하는 것은 자기중심이지만 사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은 자기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⁴³⁾

“참사랑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사랑에서 태어났고, 사랑의 길을 가야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사랑을 위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볼 때 생명보다 사랑이 더 귀한 것일 뿐 아니라 사랑이 생명보다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위해서는 생명까지 기꺼이 바치는 것입니다.”⁴⁴⁾

통일교의 생명윤리는 기독교나 다른 종교에서처럼 참사랑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도 있다. 자기의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이므로 적극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 생명윤리이다. 살아있으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신장이식, 뇌수이식 등도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장기매매, 뇌사판정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장기이식은 생명윤리에 어긋난다. 하지만 통일교의 전통에서는 자연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뇌사일 때 장기기증 하겠다는 등의 서약에 소극적이기도 하다.

43) 문선명, 『참사랑』, (서울:성화출판사), 1999, 27쪽.

44) 문선명, 『참가정과 세계평화』, 229쪽.

Ⅲ. 각 종교와 통일교의 입장을 통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소통할 수 있는 보편적 원리로서의 생명윤리 제시

각 종교와 통일교의 입장을 통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소통할 수 있는 보편적 원리로서의 생명윤리를 논하려니 한계가 지워진다. 각 종교의 입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첨단으로 발전하고 있는 생명과학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에서 밝힌 통일교 생명에 관한 윤리는 한국사회의 모든 한국종교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 종교계가 합의하고, 함께 실천해야 할 생명윤리가 되기를 바란다.

1. 생명과학의 보편적 생명윤리는 생명을 존중하면서 연구해야 한다.

생명과학의 발달은 전통적 윤리적 규범의 혼란에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영향을 주었다. 의학기술의 발달은 피임약의 개발로 성윤리의 혼란을 가져왔고, 치료를 위한 장기이식과 인공장기 개발 등의 의학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배아와 동물실험으로 생태계파괴, 죽음, 삶의 가치, 인간의 정체성, 생명의 존엄성 등에 변화가 생겼고, 윤리적 가치판단의 규범을 흔들어 놓았다.

이상과 같은 생명과학 연구의 위험성에 대해서 종교계에서 보편적인 생명윤리를 정립한다면 첫째, 모든 종교들에 공통적인 황금율에 기반하여 생명윤리를 정립하는 것이다. 생명과학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내 몸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라” 는 등의 황금율의 관점에서 생명과학을 연구하도록 생명윤리를 정립해야 한다. 인간과 자연이 유기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입장에서 연구하도록 생명윤리가 되어야 한다. 둘째, 생명과학의 연구는 인간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합리적이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생명윤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난자가 아닌 신체의 어느 한 부위를 떼어내어 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의 질서, 자연의 질서를 깨뜨리는 난자의 연구는 막는 생명윤리가 되어야 한다. 셋째,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탐구는 인류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지만 그 연구와 발전을 위한 노력의 과정과 목적이 공생, 공영, 공의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생명윤리가 되어야 한다. 넷째, 생명윤리는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생명과학의 연구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범위를 넘지 않게 잘 한계를 지을 수 있어야 한다. 지나치게 엄격하여 과학적 연구를 막거나 지나치게 허용적이어서 오용, 남용이 되지 않도록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

종교계는 생명과학의 발전에 따른 과잉된 예찬이나 무조건적인 비난은 신중해야 한다. 생명 과학 연구의 각 사안에 따라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연구방

법론에서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보편적인 생명윤리를 정해야한다. 생명윤리를 정하는 것이 종교계에서 일치된 입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종교계에서 가칭 ‘범종교생명윤리연구위원회’를 만들어 충분한 정보에 바탕을 둔 동의 도출을 하는 것이 좋겠다.

2. 생명존중의 보편적 윤리로서 임신중절(낙태, 유산)을 반대해야한다.

모든 종교는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윤리로 생명존중을 강조한다. 특히 참사랑을 가정에서 실천하면서 가정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윤리여야 한다. 첫 번째로 낙태, 즉 인공유산과 같은 임신중절수술이 불가하다는 의식교육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가톨릭 전통과 기독교 전통에서도 인간의 생명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태아의 유산, 임신중절은 반대하고 있다. 불교는 불살생(不殺生)의 계가 있기 때문에 태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귀중히 여긴다. 유교도 생명을 귀중히 여겼고, 가톨릭과 개신교, 원불교도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있다.

이상과같이 모든 종교가 생명을 중요시여기고 있는데 임신중절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종교계의 생명윤리교육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종교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윤리로 임신중절 즉 낙태를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규정하고 교육해야 한다. 동시에 과거 산아제한의 시대에 음으로 양으로 허락하였던 임신중절을 의료행위에서 공공연히 할 수 없도록 법제화를 분명히 해야 한다.⁴⁵⁾

임신중절과 관련하여 첫째, 개인적인 생명존엄의 가치관의 실천을 하면서 둘째,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공공정책을 고려하여 통전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종교가 생명존엄의 가치관을 실천하면서 과거의 만연된 성문화, 산아제한정책이나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제도, 법률, 문화, 개인의 부도덕성, 의료인의 윤리 등에 대해서 공동체적인 책임을 지는 자세로 다루어야 한다.

3. 보편적 생명윤리로서 소극적 안락사(존엄사)를 허락해야 한다.

각 종교에서 적극적 안락사에는 이견이 많으나 ‘생명유지장치’를 떼거나 하지 않을 수

45) 램지(P. Ramsey, *Fabricated Man: The Ethics of Genetic Control*, (Yale University Press, 1970))는 생명을 언제부터로 볼 것이냐의 논쟁은 낙태를 어쩔 수 없이 용인할 수 있는 면책특권을 줄 수 있으므로 ‘시점에 대한 질문’에서 ‘대안에 대한 질문’으로 관점을 전환하자고 한다. 언제부터 생명으로 보느냐의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생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었으므로 태아와 산모 두 생명의 동등한 존엄성을 인정하고, 낙태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고 한다. 어쩔 수 없는 낙태는 허락하는 통일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주장에 백프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의 신성함을 보장하도록 낙태를 반대하는 것에 동의한다.

도 있다는 소극적 안락사(존엄사)는 용인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형 노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소생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서 고생하는 사람에게 소극적 안락사를 허락하는 것은 보편적인 생명윤리가 되어야한다. 국내 의료기관과 환자 가족 간의 안락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한 것은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서울시립 보라매 병원에서 가족들의 요구로 생명유지 장치를 떼었다가 안락사를 시킨 의사를 처벌한 적이 있다. 그 후에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있던 70대 후반의 할머니의 안락사 문제를 놓고 환자 가족과 병원의 의견이 달랐고, 법정소송을 거쳐 대법원은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안락사를 시켜도 된다는 판결을 했다. 세브란스 병원 측은 병원 내 윤리위를 소집하여 법원 판결대로 인공호흡장치를 떼어내어 안락사를 시켰다.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에 대한 논란은 뜨겁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가피한 조건하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환자 본인과 가족이 충분히 논의한 후 동의하면 문제가 없다고 각 종교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생명윤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종교계는 보편적인 생명윤리로서 죽음을 임박한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병동의 확충에 나서야한다. 한국은 가톨릭을 중심으로 호스피스 병동문화는 발전했지만 절대적으로 병동 숫자가 부족하다.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계가 모두 종단 차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을 마련하고, 편안하고 조용히 자신의 삶을 정리한 후에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보편적인 생명윤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4. 보편적 생명윤리로서 장기기증을 장려해야한다.

뇌사에 따른 장기기증은 합법화되어 있고, 각 종교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⁴⁶⁾에서 보면 모든 종교에서 보편적 윤리로서 뇌사와 장기기증, 장기이식을 장려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생명윤리이다. 장기기증의 경우는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의 자율성에 기초한 동의(본인의 동의,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적출에 동의한 경우)하에 의료행위를 할 때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적출에 대한 명시적 반대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족들의 추정동의하에 필요한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

한국의 현행법이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합법화하고 있지만 첫째, 뇌사의 범위가 모호하거나 느슨하면 생명의 존엄을 해칠 수 있다. ‘뇌사자’란 뇌사 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

46) 유교의 효 윤리관에서 보면 부모가 주신 신체를 그대로 잘 보존해서 묻혀야 한다는 의식이 있지만 부모나 자식이 사경을 헤멜 때 자신의 피를 넣어주거나 자신의 살을 양식으로 삶아 주었다는 이야기들은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우선이고, 육체는 그 다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삶과 죽음의 차이를 육신과 영혼의 결합과 이탈로 규정하고, 영혼이 일정기간동안 지상에 남아 있다가 소멸된다는 유교, 무교, 도교 등의 전통적 인간관은 신체훼손을 꺼리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의 장기를 줄수 있다는 의식이 있기에 장기기증도 동의하기가 점차 쉬워지는 문화이다.

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자를 말한다. 판정은 전문의사 3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뇌사판정위원회’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를 판정한다.⁴⁷⁾ 둘째, 장기기증서약은 ‘뇌사를 전제로 하는 장기기증 서약’ 또는 ‘가족의 뇌사에 따른 장기기증의 추정동의’로 가능하다. 추정동의에 대하여 가톨릭의 이동익⁴⁸⁾은 반성의 원리, 개연론, 선택의 원리 등 세 가지를 제시한다. 반성의 원리는 뇌사자가 생전에 명시적 동의를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만일 당사자라면 이웃의 선과 윤리적 상위가치의 실현을 위해 장기 적출을 동의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되, 그 반대 입장이 증명되지 않는 한 장기 적출은 윤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생전에 사회봉사에 열심이었던 사람일 경우 추정동의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개연론에 따른 추정동의는 ‘의심스러운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선택하라’는 원칙을 활용하여 뇌사자의 입장에서 유족들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가를 선택하도록 한다. 선택의 원리에 따른 추정동의는 가치선택의 질서를 따라 공동선, 행위적합성, 성사가능성, 긴박성 등의 고려요소를 포함하여 추정동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으로 생명윤리를 제시하고 있다.

장기이식(organ transplants)은 의학적으로 이식이 필요한 사람과 제공될 장기가 서로 대체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장기이식은 살아있으면서 장기를 이식하게 할 수도 있고, 뇌사상태에서 장기를 이식하게 할 수 있다.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이식하는 자가이식과 타인의 것을 이식하는 동종이식, 다른 종의 것을 이식하는 이종이식이 있다. 장기기증(organ donation)은 기증자와 수여자가 있다. 윤리적 개념으로 타인의 치료를 목적으로 자신의 장기 등을 자발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기에 기증이다. 법률에 의하면 ‘장기 등 기증자’는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의 장기 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제공하는 자이다. 장기매매는 장기를 사고파는 것이므로 생명의 법칙에 어긋나고 윤리적으로 어긋난다.

장기기증의 문제는 생명과 죽음, 신체에 대한 관념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고, 경제적 사회적 요소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통찰의 터 위에서 종합적이고 통전적인 장기기증에 대한 연구하여 보편적인 생명윤리를 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종교계에서 힘을 합하여 장기기증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장기기증 서약을 하는 것을 보편적인 생명윤리로 정하면 한국사회의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다. 성체세포를 통한 장기의 생성은 고장 난 장기를 통해 생명의 연장과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기 때문에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47)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법률 제8008호, 2006.9.27.개정) 제16조.

48) 이동익, “뇌사자의 장기 적출에 대한 유족 동의(추정 동의:presumed Consent)의 윤리학적연구” 『카톨릭 신학과 사상』 제23호(1998년,봄).

Ⅳ. 범종교적인 차원에서 생명윤리교육을 위한 종교교육의 방향성 모색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생명윤리와 관련 있는 내용을 목표로 살펴보면 표1⁴⁹⁾처럼 되어 있다. ‘생명존중윤리’, ‘생명의료윤리’, ‘생명공학윤리’의 3개 영역으로 구분되고, ‘자신(인간)의 생명 존중’, ‘다른 생물의 생명 존중’ ‘환경과 관련된 생명 존중’, ‘출생, 죽음, 성 결정과 관련된 생명윤리’, ‘환자의 권리와 관련된 윤리의식’, ‘첨단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인식’, ‘생명공학연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인식’의 7개범주로 나누었다. 교육방법은 물론 교수자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보다는 수강자의 참여가 원활하도록 하는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종교계의 특성상 설교나 강론 등 권위있는 말씀과 함께 교육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표 1〉 생명윤리교육내용의 영역과 범주 구분 (이필연, 2013)

영역	범주	제제
생명존중윤리	자신(인간)의 생명 존중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 인간의 존엄성, 사형제도, 신체에 대한 존중,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책임
	다른 생물의 생명 존중	동식물보호, 동물복지
	환경과 관련된 생명 존중	자연에 대한 윤리적 의식과 태도
생명의료윤리	출생/죽음, 성결정과 관련된 생명 윤리	시험관 아기, 대리모, 유전자 검사, 낙태, 장기/조직이식, 생명연장 장치, 죽음의 기준, 뇌사, 식물인간, 안락사
	환자의 권리와 관련된 윤리 의식	환자의 알 권리, 환자의 의료건강정보유출, 의료 자원의 공정한 사회적 분배
생명공학윤리	첨단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인식	인간계놈 프로젝트, 생물 복제, 인간복제, 줄기세포 배양, 인간 배아 복제, 유전자조작 생물, 유전자조작 식품
	생명공학연구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인식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

위의 생명윤리의 주제들은 각 종교나 각 교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를 던지고 생명윤리를 논의를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왜냐하면 무지한 상태에서 반대나 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의 내용들을 알고 자신의 입장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49) 이필연, 『도덕교과서에 나타난 생명윤리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생활과 윤리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 가치 “범종교 생명윤리교육연구위원회”를 만들어 보편적인 생명윤리를 정립하고 구체적인 교육방법을 같이 모색해야 한다.

오늘 한국사회의 현실은 생명을 무시하고, 함부로 처리하는 자살과 타살이 팽배하고 있다. 생명존중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윤리적 삶의 가치관을 제시하는 종교에서 현대인의 윤리적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생명과학과 관련하여 생명윤리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종교가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교가 다르고, 교파가 달라서 다른 점이 강조되다 보면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생명윤리에 대해 단합하여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적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학술발표를 계기로 가치 “범종교생명윤리교육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생명윤리의 문제를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각 종단과 교파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각 종교를 서로 존중하면서 첨예한 갈등의 요소는 배제하고 보편적인 생명윤리를 모색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개인과 사회,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2. 생명사랑, 생명존중윤리와 관련된 인성교육을 하는 종교교육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생명을 존중하고 다른 생명도 존중하며 환경과 관련된 생명도 존중할 수 있는 생명윤리 종교교육은 강화되어야 한다.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강조하여 생명사랑, 생명존중의 정신이 인식되고 확산⁵⁰⁾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

종교계의 생명윤리교육 방향은 첫째, 다른 생명과 환경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문선명 선생은 성장기간에 애완용 동물, 조류, 식물을 키워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 사랑을 성장시킨다고 하면서 참사랑을 말씀하였다. 인간과 동식물, 자연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성교육이 되어져야 한다. 오늘날 유기견, 유기된 애완동물의 사례를 보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부터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도록 생명을 기르고, 양육하면서 생명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방향으로 종교교육을 해야 한다. 불교, 원불교에서 불살생의 계를 가르치는 것처럼 유일신교에서도 사랑을 가르치고,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는 경지를 말하고 있는데도 생명을 쉽게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생명을 지키는 청지기, 불살생하면서 생명을 존중하는 종교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생명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종교계가 생명존중의 가치가 더 드러나도록 윤리교육을 강화해서 생명을 중시하도록 하는 것이 선행해야 한다.

50) 문시영, 『생명윤리의 신학적 기초』, (서울: 금홍), 2012, 126~127쪽.

둘째, 생명윤리교육은 자신의 생명도 존중하고 사랑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종교는 자살을 죄로 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잘못된 교리해석으로 자기학대, 자해, 자살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도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갖도록 종교교육을 해야 한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없이 생명을 존중할 수 있도록 명상, 기도 등으로 격한 감정과 분노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종교교육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

3. 생명의료윤리를 알고 대처하도록 하는 종교교육을 해야 한다.

생명의료윤리는 출생/죽음, 성 결정, 환자의 권리와 관련된 윤리의식을 분명히 알고 삶에서 대처하는 종교교육을 해야 한다. 특히 낙태의 금지와 안락사, 뇌사, 장기/조직이식, 생명연장 장치의 제거, 안락사, 유전자검사 등에서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자원의 공정한 사회적 분배에 관심을 갖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종교교육을 해야 한다.

생명의료윤리교육은 첫째, 원하지 않은 때, 원하지 않는 사랑의 결과로 생긴 아이를 낙태, 유산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다. 통일교는 1남 1녀의 부부가 되기 위해 성장기간에는 순결을 지키고, 결혼 후에는 정절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창조목적을 이루는 길이라고 하였다. 모든 종교가 부부의 인연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기에 순결, 정절 등 성 윤리에 대한 교육의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둘째, 임신중절은 임신중절을 받는 여성과 임신중절을 하는 의사의 문제이다. 임신부나 산부인과 의사 모두 임신중절은 인간이 될 기반인 생명을 없애는 것이므로 절대 안된다는 것을 교육해야한다.

셋째, 종교에서의 생명윤리교육은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장기기증을 장려해야 한다. 동시에 임종준비 환자들을 위한 죽음준비교육을 통해 삶과 죽음에 관한 통전적인 성찰을 하게 하거나, Well Dying 교육을 통해 가족의 뇌사에 따른 장기기증을 추정 동의하는 것 이나 자신의 장기기증 등을 장려해야한다.

4. 종교에서의 생명과학의 연구는 적극적인 장려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인간계놈은 인간 고유의 존엄성과 다양성의 인정, 인류전체의 근본적 단일성의 기초가 된다. 생명의학은 생명을 복제하여 장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인류에게 질병을 없앨 수 있다는 꿈을 갖게 한다. 하지만 생명의학, 생명과학, 생명공학의 산업화에는 과학과 자본이 결합하여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을 중요시하게 되므로 문제⁵¹⁾를 낳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생명공학이 이윤추구에 종속되면서 나타나는 비밀주의로 인한 정보독점, 산학협동이라는

51) 문시영, 『같은 책』, 98~99쪽.

미명하에 진행되는 연구에서 나타날 기업과의 이익갈등으로 나타날 연구의 순수성 저해의 문제, 기초연구에 대한 기업의 개입이 초래할 수 있는 대안연구 가능성의 차단 우려, 연구의 상업주의화로 인한 순수학문의 잠식우려 등이다. 그러므로 종교계의 생명윤리교육은 위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첫째로 인간게놈프로젝트, 생물복제, 인간복제, 줄기세포배양, 인간배아복제, 유전자조작생물, 유전자조작식품에서 과학과 자본이 결탁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연구가 준비되거나 진행되는 것에 대한 막을 수 있는 종교교육이 되어야한다. 기업과 국가, 시민사회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종교계가 보편윤리를 가지고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통제와 압박으로 감시를 계속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둘째는 생명존엄을 위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회윤리적 마인드를 확립하게 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의 자아정체성을 확립하여 자살, 낙태의 금지, 인간복제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의 마련되도록 입법화, 제도화를 한다. 셋째, 생명존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⁵²⁾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생명윤리에 대한 홍보, 일반대중매체에서의 생명존엄을 위한 프로그램의 편성과 운영, 시민운동단체에서의 생명존엄을 위한 노력, 생명존엄의 강조를 위한 학술활동과 강연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명윤리를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종교교육을 해야 한다.

5. 각 생명윤리적 이슈에 종교계가 봉사, 교육과 설득, 저항을 함께 하는 방향성⁵³⁾을 가져야 한다.

종교교육과 생명윤리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윤리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종교교육의 방향성은 토론식으로 하되 적극적인 참여로 저항, 봉사, 교육과 설득을 해야 한다. 첫째, 종교적 당위만 설명하지 말고, 당위를 직접 실천하는 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장기기증운동, 낙태반대, 자살예방운동과 함께 쉼터제공, 호스피스병동과 호스피스 봉사 등 생명을 사랑하는 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봉사하도록 하는 방향성을 가져야한다. 둘째, 교육과 설득을 해야 한다. 교육방법은 토론, 강의, 설교, 문화매체 이용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보편적인 생명윤리가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개개인 자신과 가정, 이웃, 학교교육, TV, SNS, 음악, 예술의 매체를 통해 생명윤리를 교육하고 설득해야한다. 성폭력, 장애우들에 대한 폭력, 가정폭력, 사회 구조적폭력을 고발하는 연극, 영화프로그램 등은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빠르다. 셋째, 말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생명의 문제에 대처하는 생명윤리교육을 하는 것이다. 생명이 위협되고 살해되는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 항의하고, 외치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적극적인 생명윤

52) 문시영, 『같은 책』, 45~54쪽.

53) 이길찬, 『쉐퍼의 생명윤리』, (서울:솔로몬), 2011, 156~160쪽.

쉐퍼(Francis A. Schaeffer) 1912~1984년 미국, 낙태 합법화를 반대하는 생명윤리운동 전개함.

리교육이다. 특히 생명윤리를 저해하는 법률에 대한 종교의 입장을 표명하고, 그 법률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수정하거나 새로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청원하며 힘을 합해야 한다.

V. 결론

통일교의 생명윤리를 살펴보기 위해서 통일교에서 말하는 생명에 대한 관점을 육신과 영인체의 생명, 생명의 탄생과 사랑, 생명과 영인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특징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 의하여 육체와 육심으로 된 육신의 생명이 시작되고 배속에서의 태아가 태어나 숨을 쉴 때 비로소 생심과 영체로 된 영인체의 생명이 시작된다. 육신은 100년 내외로 살다가 죽어 땅에 묻히고, 영인체는 육신을 터로 완성하여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3단계의 생을 살기 때문에 모태 안에서의 태교가 중요하고, 육신 쓴 지상생활이 중요하며 영계에서 영원히 살 영인체가 중요하다.

통일교회의 생명과학 연구는 원리 내에서 책임과 실적을 요구하는 자유를 가지고 자유의지에 의한 자유행동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생명윤리를 연구가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벗어나서 해서는 안 되고, 생명을 존재자체로 보아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연구가 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동시에 연구는 창조목적은 완성하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실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입장에서 생명윤리를 정립하여 생명과학의 연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

통일교는 인공수정은 찬성하지만 산아제한과 대리모, 정자 기증은 반대한다. 임신중절과 영아살해도 반대하고, 소극적 안락사는 존엄사로 찬성하고, 뇌사와 장기기증은 찬성한다.

각 종교와 통일교의 입장을 통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소통할 수 있는 보편적 원리로서 위에서 제시한 각론에서는 일치한다. 먼저 각 종교계가 쉽게 일치할 수 있는 면에서부터 보편적인 생명윤리를 정해야 한다. 각론에서 다를 수 있는 많은 문제는 토론과 논쟁을 거치면서 정리한 보편적 생명윤리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종교교육의 방향은 먼저 보편적인 생명윤리를 정하여 종교계가 공통으로 힘을 합하여 교육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생명윤리교육의 영역과 범주에 대하여 범종교적인 차원에서 생명윤리를 정할 수 있는 가칭 “범종교 생명윤리교육 연구위원회”를 만들어서 생명윤리의 기준에서 합의와 조정을 하고, 생명과학의 문제에 공동대처를 해야 한다. 생명사랑, 생명존중의 정신을 인식하여 확산시키고, 생명과학 연구에 대한 생명윤리를 정립하여 과학적 발전을 장려하거나 통제를 해야 한다. 생명윤리교육의 방향은 교실에서만 아니라 각 종교저항, 봉사,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

보편적인 생명윤리가 우리사회에 뿌리내려 생명을 경시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교계가 봉사, 교육과 설득, 저항을 각 교인들에게 교육하고, 참여하여 현실세계에 적극

적으로 영향을 끼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통일교 내부에서도 생명윤리정립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연구가 더 있어야 하고, 보편적 생명윤리종교교육을 위해 각 교단, 교파가 합심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수현, 『인간복지 생명윤리학』, 양서원, 2005.
- 김계정, 「생명복제와 생명윤리에 관한 고찰」, 선문대학교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연구논총』, 제9집, (선문대학교 통일사상연구원, 2001).
- 김계정, 「자살에 대한 이해와 대책」, 선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제12집, (선문대학교, 2008).
- _____, 「존엄사에 관한 통일사상적 견해 도출」, 선문대학교 통일신학연구원, 『통일신학연구』, 제6집, (선문대학교, 2009년 겨울).
- _____, 「한국종교와 통일교의 생사관 및 사후세계관 연구」, 한국영성학회, 『영성연구』, (선문대학교, 2011).
- _____, 「통일사상 윤리론으로 본 생명윤리」, 통일사상학회, 『통일사상연구』, 제6집, (선문대학교 통일사상연구원, 2013).
- 김영호, 「동양사상의 생명관」, 『과학과 사상』, 통권 제7호, 1993, pp.126-130.
- 김항제, 「통일사상의 생명윤리 지표에 관한 연구」, 『통일사상연구논총』, 제9집, (선문대학교 통일사상연구원, 2001).
- 마스다 요시히코 지음/주재완·니시오카 마사유키 옮김, 『축복가정을 위한 천일국 생활윤리』, 선문대학교 출판부, 2004.
- 문시영, 『생명윤리의 신학적 기초』, 공휴: 2012.
- 문선명, 『원리원본』, 역사편찬위원회, 1954.
- _____, 『참사랑과 세계평화』, 성화출판사, 2001.
-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성화출판사, 2000.
- 배영기·진교훈외 공저, 『생명윤리와 윤리교육』, 한국학술정보, 2011.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성화출판사, 1994.
- 이길찬, 『쉐퍼의 생명윤리』, 서울: 솔로몬, 2011. 박은정,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 이경준, 『생명복제에 대한 불교적 관점』, 동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이동익, “뇌사자의 장기 적출에 대한 유족 동의(추정 동의:presumed Consent)의 윤리학적연구” 『카톨릭신학과 사상』 제23호, 1998년,봄.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법률 제8008호, 2006.9.27.개정) 제16조.
- 조태진, 「노자 도덕경과 통일사상요강의 생명윤리」, 『통일사상연구논총』, 제9집, (선문대학교 통일사상연구원, 2001).
- 최병환, 「통일사상의 존재론을 통한 생명과학과 생명윤리의 합의」, 『통일사상연구논총』, 제9집, (선문대학교 통일사상연구원, 2001).
- 참부모님말씀편찬위원회, 『평화경』,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2013.
- 황경식, 「철학적 측면에서 보는 생명복제의 현실과 인류의 미래-생명공학은 신을 희롱하는가 - 유전공학에 대한 찬반 논변」, 『사목』, 제250집,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9).
- Kye-Jeong Kim, 「An Approach to Homosexuality from the perspective of Unification

Thought」, 『Journal of Unification Thought』, Volume 3, Number 1, February 2005, pp.168-189.

_____, 「Understanding Transsexualism and Sex Change from a perspective of Unification Thought」, 『Journal of Unification Thought』, Volume 5, Number 1, February 2007.

P. Ramsey, *Fabricated Man: The Ethics of Genetic Control*, Yale University Press, 1970.

Maria Luisa Di Pietro 저/정재우 옮김, 『생명윤리 교육 그리고 가정』, 가톨릭출판사, 2010.

Rae, Scott and Paul Cox/김상득 옮김, 『생명윤리학』, 살림, 2004.

Singer, Peter & Helga Kuhse 편/변순용 강미정 홍석영 조현아 옮김, 『생명윤리학II』, (인간사랑, 2006).

원고접수일: 2014년 5월 21일 심사일: 2014년 7월 1일 게재확정일: 2014년 7월 14일

연구자소개: 오규영

① 전공: 목회상담학, 종교학 / 소속: 선문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② 관심영역: 종교학, 가족상담, 영성학, 해결중심상담, Neuro Linguistic Programing,
부부교육 및 상담

③ 주요논저: 해결중심상담 및 코칭, 사랑만들기, 목회상담과 해결중심상담, 집단가족세
우기-부모와 자녀관계중심-

④ E-mail: oky5900@hanmail.net

Abstract

Research ethics on life and religious education of unification church

Oh, KyuYoung

Sunmoon university

To examine bioethics of the Unification Church, the perspectives on life have been evaluated in terms of the life of the living and spirit mind, creation of life and love, as well as relationship between life and spirit mind.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the Unification life view is that the union of sperms and eggs begin the bodily life made of physical body and the physical mind. It also highlights that the life of spirit mind begins after the baby is born to take the first breath. Humans live three stages of life, so prenatal education in the womb and earthly life in the physical body are important. However, True Love, more important than life itself, is based on the ethics of family four position foundation.

Research ethics on life sciences should be based on free actions led by free will, but its responsibilities and results should be derived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Divine Principle. While it accepts artificial insemination that helps create family four position foundation, surrogacy, sperm and egg donations, artificial abortion and infanticide are opposed. Passive euthanasia, brain death and organ donation are also accepted.

Universally, our bioethics propose respect for life based on the golden rule. To direct religious teachings in the right manner, the tentatively-titled “Cross-religious Bioethics Education Research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to define the boundaries of bioethics and teach, persuade and stand up for such beliefs together across all religions.

Key words: the Life, bioethics, Research ethics on life, religious education